

## 꿈의 풍경

김선한 (슈페리어갤러리 아트디렉터)

슈페리어갤러리는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실험적 시도를 하는 임상빈 작가 《꿈의 풍경(Dreamscape)》전을 기획하였다.

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2006년부터 시작한 화획(strokes) 시리즈 회화 작품을 보여준다. 화획(Strokes) 시리즈는 수많은 획들이 얽히고 설키며 화면에 기운생동(氣韻生動)을 표현한다.

《꿈의 풍경(Dreamscape)》전에서는 2021년 이후 진행된 다양한 색감의 화획(strokes) 신작을 선보인다.

전시에 소개된 작가의 작품은 중첩된 다층(collective layers) 개념으로 화면위에 수많은 붓질을 중첩하여 쌓아올린 물감층의 다층적 입체이자 평면과 대면함을 보여준다. 작가의 회화작업은 기존 사진작업과 전혀 다르게 보이지만 사진작품이 여러 장소에서 다양한 시점으로 바라본 파편적 이미지의 집적이란 측면에서 작가의 조형언어와 연장선에 있다. 작가에게 집적이란 새로움과 가능성을 관통하는 예술 에너지를 가장 잘 표현하는 주제이다.

작가는 작품 각각의 획이 단순한 획이 아닌 자아의 연장이라고 이야기한다. 이는 우연적 붓질이 필연적으로 쌓이고 나뉘며 성장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모든 획은 집단 초상화로 상징된다. 그가 제시하는 '획' 작업은 획의 우연적이고 열린 개념에 주목한 작가 사색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캔버스 위에 그려진 다층의 이미지는 즉흥적 붓놀림을 통한 우연과 의도가 결합하여 새로운 회화적 내러티브로 변환된 인식의 풍경으로 확장된다. 작가는 이를 탈의도적 초의미성 개념으로 설명하며 이는 보이는 것 이면을 포착하는 힘으로써 회화의 인식적 풍경을 제안한다.

화획(strokes) 작품은 임상빈 작가가 오랜 기간 사진, 회화, 설치, 영상을 통해 시도해온 주제와 기법이 여러 단계를 거쳐 정제된 결과물이다. 작가의 작업은 다양한 색의 프리즘으로 동시대를 압축해서 보여주는 다층적인 울림을 주는 작품이다.

《꿈의 풍경(Dreamscape)》전은 작가의 철학이 작품에 스며든 전시이다. 작품을 통해 꿈의 풍경을 대면하는 이면에는 현대인의 욕망과 상실, 작가의 열정과 고된 작업이 녹아있다.